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 28)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760-340 안동시 정백이골길 36-15(안막동)

전화 858-3114~5 팩스 856-6101

이메일 sa3119@nate.com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천주교회를 소개합니다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교황 프란치스코 (Jorge Mario Bergoglio, Francis)



안동교구청
사무처 858-3111~3 | 사목국 858-3114~5

	성당 이름	전화번호	
안동지구	목성동	858-2460	858-4405
	송현동	859-4213	859-4212
	용상동	821-2419	821-3486
	정상동	857-1781	
	태화동	852-7038	852-1404
의성지구	구담	652-3334	
	다인	861-8343	861-8344
	안계	861-0371	862-2552
	의성	834-1781	834-1782
	풍양	654-8833	652-3062
문경지구	가은	571-6040	571-6090
	모전동	553-6652	555-6734
	문경	572-0531	572-0532
	신기동	553-5821	552-0270
	점촌동	553-8190	553-8194
	함창	541-3037	541-3078

	성당 이름	전화번호	
상주지구	개운동	532-2901	533-2903
	계림동	534-9600	
	공검	541-2707	541-2767
	남성동	531-1781	531-1783
	사벌·퇴강	536-3789	532-8104
	서문동	535-2017	535-2484
	옥산	532-4507	531-3508
	화령	533-0044	534-9376
북부지구	봉화	674-1781	674-1783
	예천	654-2042	654-3654
	춘양	672-1782	
	풍기	636-2204	636-2772
	하망동	636-9100	636-9102
	휴천동	638-1781	638-1783
동해지구	강구	733-4003	
	북면	783-1965	
	영덕	733-0511	734-3929
	영양	683-2105	682-1758
	영해	733-6880	732-0375
	울진	782-2130	782-6787
	진보	874-2397	
	청송	872-2051	873-2051
	후포	788-2157	



초대합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은총은 누리는 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은총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야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야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코린 6,2)

가톨릭은 세계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가톨릭교회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천주’(天主)라는 말은 ‘하느님’을 뜻하고, 가톨릭(catholic)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성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두루 아우르기 때문에 ‘가톨릭’이라고 불립니다. 교회가 모든 도리(道理)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참된 신앙의 품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어떤 죄악이라도 모두 돌보고 치유해 주기 때문에, 온갖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라 합니다.

당연히 ‘가톨릭’은 세계적(global)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가톨릭교회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존재합니다.



바티칸 전경

가톨릭은 그리스도교의 종가^{宗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종갓집에는 법통이 있고 기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뭔가 품기는 품격이 다릅니다.

오늘날 세계 71억 인구 대비 종교인 비율은 대략 이슬람교가 16억3천5백만 명, 가톨릭 12억2백만 명, 힌두교 9억8천만 명, 불교 5억9백만 명, 개신교 4억3천9백만 명(3천여 개 개신교 교파 총계), 정교회 2억7천9백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2013년 국제 선교통계보고 참조)

여기서 이슬람교는 국교이기 때문에 국민 인구와 신자 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 수가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미사

전 세계의 정신적인 지주인 교황 教皇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 '교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
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
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8-19)

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의 '후계자'가 아닌 '대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계 교회를 이끌 '하늘이 준 카리
스마'가 매시대마다 필요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황직은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은 2013년 3월 13일에 새롭게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각국의 지도자들과 대기업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웃 사랑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프란치스코 효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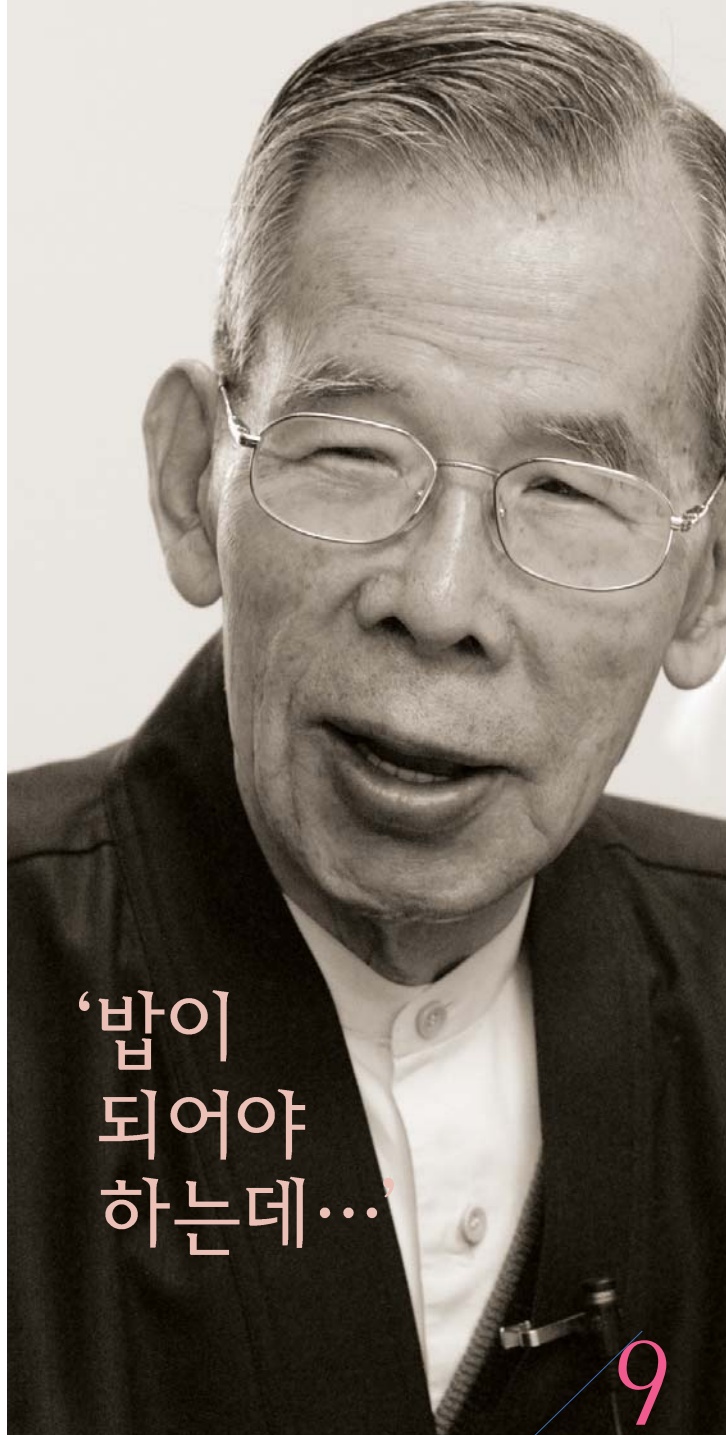
김수환 추기경의 삶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그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고뇌하는 신앙인이었고, 20세기 우리나라를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삶은 지극히 작고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은 단지 모두 가지고 있던 ‘양심’의 실천이었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그의 감동적인 삶은 단지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김 추기경의 운전사로 30년을 모신 김형태 씨는 가까이에서 본 그의 성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추기경님은 대중 앞에서나 홀로 계실 때나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차에 타서도 혼잣말처럼 ‘밥이 되어야 하는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차별도 없이 세상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 되고 싶어 하셨던 것이지요.”



‘밥이
되어야
하는데...’

천주교 신자

안중근 의사 1879-1910, 세례명 : 토마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니 두려움이 없다. 더욱이 나는 천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해 다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 주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 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10년 경술 3월 26일,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최후의 유언')



“내가 이등박문을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고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일본 법정 증언)

성모 마리아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어느 성당이든지 정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안마당 뜰에 있는 성모상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 흠숭(欽崇)을 드리며, 마리아는 다만 공경(恭敬)할 따름입니다.

‘흠숭’과 ‘공경’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흠숭은 신적인 존재에게만 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에 비해 공경은 어떤 모범적인 인물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성모님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따른 분은 없습니다. 먼저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하느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공경한 분이니 신자들이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사진이나 동상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조상제사는 아름다운 상조문화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조상제사를 조상에 대한 아름다운 효행으로 보고 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들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배척하지 않으며, 그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톨릭교회의 아름다운 상조문화는 유명합니다. 가톨릭교회에는 ‘연령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상을 당하는 순간부터 모든 복잡한 일을 대신해 줍니다. 상을 치르는 기간 내내 함께해 주면서 슬픔을 나누고 고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 희생적 사랑의 연대정신은 가톨릭교회 고유의 모범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나에게’ _ 성직자 묘지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개신교 시민운동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3년 12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9.2%가 천주교를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꼽았습니다. 불교(28%), 개신교(21.3%)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천주교 신자 비율은 10.1%, 개신교 22.5%, 불교 22.1%, 무종교 44.8%였습니다. 응답자 중 천주교 신자 비율이 가장 낮지만 신뢰도 1위를 차지한 배경은, 무종교인 중 32.7%가 천주교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불교 신자의 13.3%, 개신교 신자의 11.9%가 천주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천주교가 8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천주교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된
빈자의 성녀
마더 테레사

천주교는 가난한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의 벗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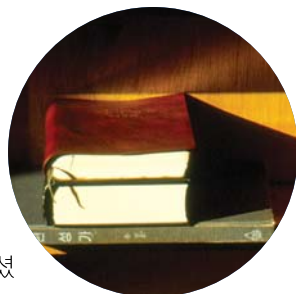
천주교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전국에 수많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각종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명, 환경, 통일, 인권, 농촌 살리기운동 등의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상지여자중고등학교(함창), 가톨릭상지대학교(안동), 다미안 피부과의원(영주)이 있고 그 외 주요 사회복지시설로는 복지관 4개(종합복지관 2개, 장애인복지관 1개, 노인복지관 1개), 장애인시설

3개, 아동복지시설 8개, 노인 복지시설 7개,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5개, 급식소 5개, 여성복지시설 2개, 한센인 시설 1개, 한센인 정착마을 6곳이 있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 지거 콰더 작

믿으면 평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조건이 채워진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문제의 한 가운데에서도 고통의 절정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이런 평화의 체험은 몇몇 신앙인만 누리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누리는 체험입니다.

미루지 말고 은총을 누리세요.

성당은 죄의 용서와 생명이 충만한 공간입니다. 성경에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성전(성당)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의 강을 이루는 것을 환시로 보았습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았다.”(에제 47,9)

이 생명의 물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의 은총을 받아,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기운으로 가슴이 채워지고, 평화 가운데 생기가 충전되고 삶의 의욕이 솟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톨릭교회의 미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내세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세에서 시작됩니다. 가톨릭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복을 찾아 영원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와서 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회를
소개합니다

